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dopted Criteria for Selecting Titles entered in *Hong-ssi Dokseorok*, or Hong's Annotated Bibliography of Older Books

리 상 용(Lee, Sang-Yong)**

◁ 목 차 ▷

- | | |
|-------------------|--------------------|
| 1. 서론 | 3.4 기타 기준 |
| 2. 수록 서적의 범위 | 4.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
| 3. 서적선정기준 분석 | 장서평가기준과의 비교 |
| 3.1 내재적 가치에 의한 기준 | 4.1 저자 사항 |
| 3.2 사상적 가치에 의한 기준 | 4.2 내용 사항 |
| 3.3 역사적 가치에 의한 기준 | 5. 결론 |

< 초 록 >

본 논문은 연천 홍석주가 1810년(순조10년)에 편찬한 분류순 선정도서해제인 「홍씨독서록」에 수록된 각 서적의 해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서적의 선정 기준을 분석한 것이다. 「홍씨독서록」에 나타난 서적선정기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현대 일반도서관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한 바, 「홍씨독서록」의 서적 선정기준이 현대도서관의 그것에 못지않게 우수한 것임을 밝혀냈다.

키워드 : 연천, 홍석주, 홍씨독서록, 선정기준, 장서평가기준

< 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dopted criteria for selecting titles based upon book annotations included in *Hong's Annotated Bibliography of Older Books*, which was published by Hong Seok-ju, a scholar of the reign of Sunjo of Yi dynasty, in 1810. This study examined various types of criteria practised in *Hong's Annotated Bibliography of Older Books* and then compared them to the Modern general library criteria of book selection, and found that *Hong's* one is a superior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05년 5월 25일 최초심사일: 2005년 5월 27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0일

criteria as much as a Modern's.

Keyword : Hong Seok-ju, Adopted criteria for selecting titles, Library criteria of book selection, Hong's Annotated Bibliography of Older Books

K C I

1. 서론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은 1810년(순조10년)에 여한십대문장가 麗韓十代文章家 가운데 한 사람인 연천 홍석주(淵泉洪奭周)(1774-1842)가 472종의 서적을 대상으로 편찬한 분류순 선정도서해제목록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천이 「홍씨독서록」을 찬술하게 된 동기는 그가 젊은 시절에 분별없이 마구잡이로 독서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동생 길주(吉周)와 홍씨 문중 및 우리나라 후학의 학문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더구나 연천이 「홍씨독서록」을 편찬할 당시에는, 가학적(家學的) 전통과 더불어 풍부한 가장 서적(家藏書籍)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전적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았으며, 22세에 과거에 급제한 후에 홍문관, 규장각 등 왕실도서관에서 활동하면서 쌓은 전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거의 완숙기에 다다른 상태였다.

연천은 「홍씨독서록」을 편찬하면서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 버금가는 목록을 편찬하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그 목록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¹⁾. 그런 만큼 연천이 이 「홍씨독서록」에 수록할 서적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실제로 「홍씨독서록」에는 책의 해제를 기술하면서, 그 서적을 수록한 사유 또는 선정한 기준을 밝히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전(現傳)하는 조선시대의 해제목록인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 「누판고(鑊板考)」, 「규장총목(奎章總目)」 등에서도 각 서적의 해제 기술에 있어 그 책을 선정한 사유가 나타나고 있지만, 「홍씨독서록」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정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연천의 이 같은 서적선정기준은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도 합치되는 것이며, 당시 연천이 속한 조선 후기 핵심 지배층에서 선정도서목록을 편찬할 때 어떤 기준 하에서 각 주제 분야의 서적을 선정하였으며,

1) 洪奭周, 洪氏讀書錄, 史部, 志門, 藝文目, 「四庫全書簡明目錄」

嗚呼 上下數千年之載籍 以敦一代之鉅典 而乃欲以一時之忌諱 一人之好惡 參於其間 其亦難矣 總目 凡二百卷 刪其書而存其目者 又居其半 舛繆闕漏 殆不可勝摺也

어떤 방향으로 학문을 하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는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홍씨독서록」에 수록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들 서적의 해제에 나타난 선정 기준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수록 서적의 범위

「홍씨독서록」에 수록된 서적의 범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연천의 가학적(家學的) 학문 풍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천이 쓴 「풍산세고(豊山世稿)」의 발문(跋文)²⁾에는 연천 가문의 학문풍토가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 따르면, 연천 집안의 문장(文章)은 예의와 경전에 근거한 정통적인 문장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기이하거나 첨단을 걷는 새로운 기풍의 글이나 음란하거나 기교를 부리거나 유행을 따르는 글은 쓰지 말아야 한다³⁾고 했다. 연천은 문장(文章)을 도(道)와 동일시하였으므로⁴⁾ 연천 가문의 학풍은 유가적 정통주의에 입각한 도문일체(道文一體)의 문장론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대전제 하에 연천은 「산해경(山海經)」과 「예문유취(藝文類聚)」의 해제에서 「홍씨독서록」에 수록된 서적의 큰 범위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洪奭周, 豊山世稿跋(淵泉全書, 卷7, p.349).
今上二十年 庚辰中夏 後孫奭周 敬跋于卷尾.

3) 위의 글(淵泉全書, 卷7, p.349b).
吾家以文學相傳紹 迨今十八世矣 … 若其非禮義不稱 非經傳不述 一唯是和平典寔 以爲主者 是維吾世世家法 至于今 未有可易者也 … 凡我後子孫 … 文而不本于禮義經傳 且無爲僻澁尖新淫巧之習 以徇時好者哉

4) 洪奭周, 答金平仲論文書(淵泉全書, 卷2, p.679).
始知文之未嘗不爲道 而道之未嘗不爲文 其然者何也 同一心而已矣.

나는 이 「홍씨독서록」을 편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의(大義)에 따른 서적은 수록하고, 이단(異端)적인 것은 제외시켰다.(余作是錄 蓋將依大義以削異端⁵⁾)

대저 유사(類書)는 학문에 있어 지엽적인 존재이다. 왕응린(王應麟)의 「옥해(玉海)」, 축복(祝穆)의 「사문유취(事文類聚)」, 장준경(章俊卿)의 「산당고색(山堂考索)」 및 강희연간(康熙年間)에 편찬한 「연감유합(淵鑑類函)」, 「패문운부(佩文韻府)」, 「병자유편(駢字類編)」 등은 모두 근세에 성행하는 책이다. 이 책들은 과거시험용으로는 괜찮으나 도(道)를 논하는 데는 불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모두 [홍씨독서록에서] 제외하고 수록하지 않았다.(夫類書之於問學 未也 如王應麟 玉海 祝穆 事文類聚 章俊卿 山堂考索 及康熙時所纂 淵鑑類函 佩文韻府 駢字類編 皆近世所盛行 者 以之爲應舉之用則可 語道則非所聞也 是以咸闕焉)⁶⁾

위의 글은 「홍씨독서록」에 수록된 서적의 범위와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연천은 「홍씨독서록」을 편찬하면서 유가의 도학 실현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아서, 도학적인 개념 없이 단순히 과거시험 준비에만 필요한 서적은 원칙적으로 수록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독서관, 현대의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와는 달리, 지금의 공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당시 양반지배계층의 독서 목적은 입신양명과 도학실현에 있었다. 그들은 경서에서 성현들이 표방하는 도학을 배우고, 과거에 합격한 후에 이때까지 공부해 온 성현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고 실천하는 유가 정치사상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연천 역시 당시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독서의 목적으로 구도(求道)⁷⁾와 입신양명(立身揚命)⁸⁾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부친 죽수당 홍인모(足睡堂洪仁謨)와 동생 항해 홍길주(沆漉洪吉周)가 뛰어난 학문의 소유자임에도 평생 학생(學生)으로 지낸 데 영향을 받아, 그 역시 평소에 과거 제도의 폐단에 대해 비판하고, 오로지 과거시험 준비만을 위한 입신적인 공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출

5) 洪昶周, 洪氏讀書錄, 史部, 志門, 職方目, 「山海經」.

6) 위의 책, 子部, 說家門, 類書目, 「藝文類聚」.

7) 洪昶周, 延安鄉校講會錄, 淵泉全書 (서울: 昨晨社, 1984) 卷 3, pp.101-102
讀書者 將以求道也 讀書而不求道 是不如不讀書也

8) 洪昶周, 上黨世稿序, 淵泉全書, pp.189.

孔子曰 立身揚名以顯父母 顯親存乎立身 立身存乎學 學又莫先於讀書

세지향적인 공부보다는 성인의 도를 체득하고 이를 통해서 유가의 도학을 세상에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는 그런 공부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 같은 연천의 성향은 「홍씨독서록」의 서적선정기준에도 잘 드러난다.

3. 서적선정기준 분석

연천은 「홍씨독서록」에 수록된 서적의 해제를 기술하면서 그 서적을 선정한 기준 또는 사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홍씨독서록」에 수록된 한국본 64종과 중국본 408종의 해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472종의 수록 서적 가운데 그 선정 사유로 해석할만한 내용을 밝힌 것은 260종(55%)으로 나타났다. 연천은 전체 수록 서적 과반수이상의 것에 대해 그 서적을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연천이 「홍씨독서록」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이 동생 길주를 비롯한 홍씨 문중과 더 나아가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의 학문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편찬한 것인 만큼, 이 같은 전제하에 그가 해제 내용에서 밝힌 서적의 선정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홍씨독서록」에 수록된 서적의 선정기준을 1) 내재적 가치에 의한 기준, 2) 사상적 가치에 의한 기준, 3) 역사적 가치에 의한 기준, 4) 기타 기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내재적 가치에 의한 기준

서적의 내재적 가치란 도서 자체가 지니는 본질적 가치에 의해 서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동일 주제하의 여러 서적 중에서 문장 또는 내용의 수준이 타 서적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1) 내용이 뛰어나거나, 집대성한 경우, 2) 저자의 인물됨을 중시하여 선정한 경우, 3) 내용이나 저자보다

는 문장이 뛰어난 경우, 4) 내용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5) 수록범위가 방대한 경우, 6) 당시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내지 참조할 만한 내용이 담긴 필수지침서적인 성격을 띤 경우 등이 있다. 이들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내용이 뛰어나거나, 집대성한 경우

후학의 학문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학문적인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한 해제목록을 편찬하면서, 목록편찬자가 각 주제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내용이 담긴 서적을 선정하여 수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는지 모른다. 연천 역시 「홍씨독서록」의 서적선정과정에서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을 선정하고 있다.

그는 「돈효록(敦孝錄)」의 해제에서 “서적이 나온 이래로부터 부모를 섬기는 도를 발휘한 것이 이같이 상세하고 또 갖추어진 것은 없다.”⁹⁾고 하고, 「통감전편(通鑑前編)」에서는 대개 삼대 이후 편년체 역사서로 오직 이 책이 가장 정밀하다.”¹⁰⁾고 해제하고 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의 해제에서는 “이 책이 미처 간행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라 불리운다.”¹¹⁾고 밝히면서, 그 선정한 서적의 내용적인 가치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해제에서 “단군과 기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세워진 것이 여덟이요, 햇수로 따지면 4천여년인데 그 문헌 중에 얻어서 상고할만한 것은 오직 이 책만이 있다.”¹²⁾고 하여 수록된

9) 洪奭周, 洪氏讀書錄, 經部 孝經門

自載籍以來 發揮事親之道 未有若是之詳且備者也

10) 위의 책, 史部 編年目

蓋三代已上 編年之史 唯此書最精云

11) 위의 책, 史部 編年目

是書未及刊行 而在東史中 最號善本焉

12) 위의 책, 史部 志門 總志目

籒禮箕以迄于今 爲國者八 爲年者四千有餘 其文獻之賴以有考者 唯茲書在

내용이 폭넓고 훌륭하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밖에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강희자전(康熙字典)」¹³⁾, 「성학집요(聖學輯要)」¹⁴⁾, 「지봉유설(芝峰類說)」¹⁵⁾, 「제민요술(齊民要術)」¹⁶⁾, 「당시품회(唐詩品彙)」¹⁷⁾ 등이 있다.

또한 여러 선생의 설을 종합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집대성한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예의유집(禮儀類輯)」의 해제에서는 “이 책에 수록된 것은 모두 동방의 여러 선생의 설”¹⁸⁾이라고 하고, 「악서(樂書)」의 해제에서는 “고금의 음악을 논한 해설들이 대략 갖추어져 있다.”¹⁹⁾고 하여 이들 책이 여러 사람들의 해설을 종합한 책임을 밝혀 주고 있다. 「수리정운(數理精蘊)」의 해제에서는 “그 분석이 정밀하고, 그 설명이 상세하니 수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²⁰⁾고 하여 수학 분야에서 집대성한 서적을 선정하고 있다. 이밖에 「춘추석례(春秋釋例)」²¹⁾, 「경의고(經義考)」²²⁾ 등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13) 위의 책, 經部, 小學門

古今字書 未有若是之賅且精者

14) 위의 책, 子部, 儒家門

東方之有書籍 垂二千年 … 宜以此書爲第一 雖百世不能易也

15) 위의 책, 子部, 說家門, 論說目

我東說家 推此書爲首

16) 위의 책, 子部, 農家門

後代言農政者 咸推是書爲首

17) 위의 책, 集部, 總集門

由宋以來 選唐詩者 莫備于是書 亦莫正于是書

18) 위의 책, 經部, 禮門

是書所載 皆東方 諸先生之說

19) 위의 책, 經部, 樂門

然古今論樂之說 亦略備矣

20) 위의 책, 子部, 數家門

其析之也密 其說之也詳 亦可謂集數學之大成矣

21) 위의 책, 經部, 春秋門

先儒皆稱其精博焉

22) 위의 책, 史部, 志門, 藝文目

古今解經之書 以千百家數 是書 蒐羅別抉 百不遺一 可謂博矣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천은 전 주제 분야에 걸쳐서 책을 두루 섭렵한 후, 그 중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책을 선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후학들이 효율적으로 독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독(選讀)에만 치중할 경우, 학문의 깊이와 폭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분야에서든 집대성한 서적들을 선정하여 목록에 수록함으로써 독서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3.1.2 저자의 인물됨을 중시하여 선정한 경우

선정도서해제목록을 만들 때, 서적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 기준에는 1) 각 분야의 주요한 인물임을 중시하여 선정한 경우, 2) 그 인물이 고금 불변의 대문장가이거나 책의 문장이 빼어나서 수록한 경우, 3) 주요한 인물들이 찬사를 보내거나 그들이 인용한 서적이라 선정한 경우 등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2.1 각 분야의 주요한 인물임을 중시하여 선정한 경우

경사자집 전 주제 분야를 포괄하는 해제목록을 편찬하면서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연천은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의 저술을 선정하여 「홍씨독서록」에 수록하였다. 여기에는 각 주제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수록한 경우도 있지만, 그 인물의 문장이나 저술의 내용보다도 그 인물의 인물됨과 위업 또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여 수록한 사례도 보인다. 여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씨가숙독시기(呂氏家塾讀詩記)」의 해제에서는 저자 백공 여조겸(伯恭呂祖謙)에 대해 “송나라 이래로 소서(小序)로서 시를 설명한 것은 백공이 으뜸이

다.”²³⁾라고 극찬하였다. 「용천략지(龍川略志)」에서도 “구양수(歐陽修)와 소식(蘇軾) 두 사람의 저술을 수록한 것은 그 인물을 중히 여긴 것이다.”²⁴⁾라고 하였으며, 「송막기문(松漠紀聞)」의 해제에서는 “송나라 원나라 이래 사건을 기록한 서적으로 이 같은 부류가 꽤 많은데 이 책을 남겨 둔 것은 그 인물을 중히 여긴 것”²⁵⁾이라고 하였으며, 「속시화(續詩話)」에서도 역시 “송나라 사람의 시화가 무려 수십 가인데, 오직 이 두 책을 남긴 것은 그 인물을 취한 것이다.”²⁶⁾라고 하였다. 또한 「춘추사설(春秋師說)」의 해제에서 “송원이래 「춘추」를 설명한 사람이 무려 수십명인데 그 정밀하게 생각하고 홀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황택(黃澤)만한 사람이 없다.”²⁷⁾고 하여 책을 쓴 저자의 중요성 때문에 수록했다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서적에 대해서도 인물의 중요성 때문에 선정한 사례가 있다. 바로 이제현의 「익재집(益齋集)」과 정조조에 내각 제신이 편찬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익재집」의 해제에서는 “고려 시대에 문집으로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공(公)(이제현)과 재상(宰相) 이규보(李奎報)의 것이 가장 뛰어난데, 오로지 공(公)의 것을 취한 이유는 그 사람을 중히 여긴 것이다.”²⁸⁾라고 하여 이규보와 이제현(李齊賢) 두 사람의 문집 가운데 이제현의 「익재집」을 수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문장으로서의 우열을 논하기 어렵다 해도 그 인품이 이제현이 훌륭할 뿐만 아니

23) 위의 책, 經部, 詩門

然由宋以來 以小序說詩者 伯恭[呂祖謙] 其冠也

24) 위의 책, 史部, 野史門

錄歐蘇二家 重其人也

25) 위의 책, 史部, 裨史門, 紀事目

宋元以來 紀事之書如此類者 頗多 獨存此書者 重其人也

26) 위의 책, 子部, 說家門, 評藝目

宋人詩話 無慮數十家 存此二書 [續詩話, 六一詩話] 取其人也

27) 위의 책, 經部, 春秋門

宋元以來 說春秋者 無慮數十家 而其精思獨得者 莫如黃澤

28) 위의 책, 集部, 別集門

麗之有集者 唯公與李相國奎報最著 獨取公者 重其人也

라 문장에서도 유가적인 전아(典雅)함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충무공 전서」의 해제에서는 “조선시대의 훌륭한 장수는 충무공이 제일이다.”²⁹⁾라고 평하여 임진왜란 때 왜병을 무찌른 그의 전과(戰果)를 높이 평가하여 그에 관한 서적을 수록하였다.

3.1.2.2 고급 불변의 대문장가이거나 수록된 책의 문장이 빼어나서 수록한 경우

연천은 여한십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대 문장가답게 문장을 보는 식견 역시 대단히 높았으며, 이 같은 그의 안목은 「홍씨독서록」에 수록할 서적을 선정하는 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는 평소에 선진(先秦)의 고문(古文)을 으뜸으로 치며, 그 다음으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문장을 손꼽고 있다. 이 같은 그의 문장관을 뒷받침해 주듯이 그는 선진시대의 유명한 문장을 담은 서적을 선정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예로서, 「전국책(戰國策)」의 해제에서 “그 문장이 뛰어나고 빼어난 것은 진실로 진나라 한나라 이후의 선비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³⁰⁾라고 하고, 「순자(荀子)」의 해제에서도 “그 문장의 위려함과 크고 깊은 것은 오직 장자(莊子)만이 함께 일컬을 수 있으며, 선진 이후의 작자는 모두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³¹⁾고 하여 선진 문장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이들 책을 수록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선진 문장에 대한 연천의 애정은 역시 대단했다. 그가 비록 「홍씨독서록」에 수록한 서적의 성격을 “원칙적으로 대의(大義)에 따른 것을 선정하고 이단적인 것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그는 빼어난 선진문장가인 경우 비록 이단(異端)의 인물이라도 수록하는 포용성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장자」를

29) 위의 책, 史部 禱史門 紀人目
李朝良將 李忠武公爲第一

30) 위의 책, 史部 編年目
若其文章奇偉 固非秦漢以後之所能及也

31) 위의 책, 子部 儒家門
若其文章偉麗闊肆 唯莊周可以并稱 秦漢以來作者 咸不及也

선정하여 수록하고 그 해제에서 “장자가 나온 이후에 미쳐 날뛰고 방자해서 남을 헐뜯는 폐단이 극에 달했다.”³²⁾고 하여 장자의 사상에 대해 혹평하면서도 그의 문장에 대해서는 “선진(先秦) 이래 없는 것”³³⁾이라고 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연천이 자신과 사상을 달리하는 노가(老家)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인 장자(莊子)의 문장을 높이 평가하여 선정한 점은 상당히 공평하고 포용성 있는 처사인 동시에 선진문장에 대한 그의 애정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는 고급불변의 대표적인 문장가로 중국의 한유(韓愈)와 장자(莊子), 우리나라의 문장가로 이색(李穡)을 손꼽고 있다. 그는 한유의 문집인 「한문(韓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유의 문장은 학문에서 주자와 같은 위치이다. 학문을 말하는 데 주자가 아니고, 문장을 말하는 데 한유가 아니면 나는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다(韓公之文猶朱子之於學也 語學而非朱 語文而非韓 吾不欲聞之矣)³⁴⁾

그는 문장이라면 한유, 학문이라면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주자와 한유를 같은 수준의 인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한유를 주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평가한 점은 한유에 대한 연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정통주의적인 입장의 문장론을 주장하는 연천이 선진고문의 정통을 이어 받은 당송팔대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한유를 높이 평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문장가로는 이색(李穡)을 손꼽고 있다. 그는 이색의 문집인 「목은집(牧隱集)」 해제에서 “우리나라의 문장은 공을 추대하여 대종사로 삼는다.”³⁵⁾고 하여 이색의 문집을 추천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32) 위의 책, 子部, 老家門
至莊子以後 猖狂恣睢之弊 極矣
33) 위의 책
其文章雄辯 則先秦以降 所未有也
34) 위의 책, 集部, 別集門
35) 위의 책, 集部, 別集門
東國之文章 推公爲大宗師

이밖에 「석림언어(石林燕語)」의 해제에서는 “그 사람은 죽히 볼 것도 없지만, 그 문장의 넓고 웅대함은 한 시대의 여러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것”³⁶⁾이라고 하여 그 저자가 하찮은 인물이라든가 문장을 잘 써서 선정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3.1.2.3 주요한 인물들이 찬사를 보내거나 그들이 인용한 서적이라 선정한 경우

연천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물 외에도 다른 주요한 인물들이 찬사를 보내거나 그들이 책을 편찬하면서 인용한 서적들을 선정하였다.

「남사, 북사(南史, 北史)」의 해제에서는 “사마공(司馬公 즉, 사마천)이 일찍이 이 책들을 좋은 역사책이라고 칭송하였다.”³⁷⁾고 하여 사마천(司馬遷)의 호평이 들어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음학오서(音學五書)」의 해제에서는 청대의 유명한 학자인 이광지(李光地)가 이 책의 저자인 고염무(顧炎武)에 대해 “그의 음학(音學)은 삼대 이후에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³⁸⁾이라고 극찬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당감(唐鑑)」의 해제에서는 “좋은 평을 하는 데 인색한 정자가 그 책에 대해 삼대 이후에 이 같은 논의가 없다고 칭송했다는 내용”³⁹⁾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이러한 기준 하에 수록된 것으로 「송학사전집(宋學士全集)」⁴⁰⁾ 등 여러 저작이 있다.

이밖에 대학자들이 책을 찬술할 때 인용한 구절이 많았던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 그는 「안씨가훈(顏氏家訓)」의 해제에서 “주자가 「소학(小學)」을 지을 때

36) 위의 책, 子部 說家門 論說目
其人不足觀也 然文章博雅 非一時諸人所及 故其書則足觀焉

37) 위의 책, 史部 紀傳目
司馬公嘗以良史稱之

38) 위의 책, 經部 小學門
李光地稱之曰 顧炎武之音學 … 三代以來未有也

39) 위의 책, 史部 史門 別史目
程叔子於人小許可 嘗曰 三代以後無此議論云

40) 위의 책, 集部 別集門
劉伯溫意氣雄天下 嘗告高皇帝曰 方今天下文章第一人 唯有臣濂

이 책에서 취한 내용이 아주 많다.”⁴¹⁾고 그 선정기준을 밝히고 있다.

3.1.3 서적의 내용을 극찬하지는 않았지만, 불만한 가치가 있어서 선정한 경우

연천은 서적의 내용을 극찬하지는 않았지만 그 책의 내용이 불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고 있다. 그는 그 책을 선정한 이유로서 ‘불만한 것이 있다.(可觀也)’ 또는 ‘취할만한 것이 있다(可取也)’고 해당 서적의 해제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춘추권형(春秋權衡)」의 해제에서 그 책의 저자인 “유창(劉敞)의 학문이 박학하고 문장 또한 고문에 가까워서 춘추삼전(春秋三傳)의 문장으로 송유(宋儒)의 해설을 문체나게 하였으므로 그 책 또한 불만한 것이다.”⁴²⁾라고 그 기준을 밝히고 있다. 「관윤자(關尹子)」에서도 “그 책이 현리(玄理)를 발명하였으므로 또한 때때로 불만 한 것이 있다.”⁴³⁾고 그 기준을 밝히고, 「동인시화(東人詩話)」에서도 “이 책은 시가(詩家)에 대해 깊이 깨달아 밝힌 것은 없지만 민간에서 증거한 것은 간혹 취할만 하다.”⁴⁴⁾고 하고, 「오례의(五禮儀)」에서도 “이 책은 또한 상고해 불만하다.”⁴⁵⁾고 하여 그 서적의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어서 수록했다기 보다는 후학들이 불만한 서적이기 때문에 선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 책의 내용이 뛰어나지는 않으나 성인과 현인들의 격언이 있어서 선정한 경우가 있다. 그 같은 예로 「한시외전(韓詩外傳)」의 해제에서 “그 책에 나온 말들이 제자백가의 책에서 나온 것들이 많고 「순자(荀子)」는 후대의 사람들이 위

41) 위의 책, 子部, 雜家門
朱子作小學 取之甚多

42) 위의 책, 經部, 春秋門
劉氏之學 既博而文又近古 能以三傳之文 文宋儒之說 其書亦可觀也

43) 위의 책, 子部, 老家門
然發明玄理 亦時有可觀者

44) 위의 책, 子部, 說家門, 評藝目
是書於詩家 無甚發明 而徵野聞者 或取焉

45) 위의 책, 史部, 志門, 禮儀目
是書者 亦可以考見焉

은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책을 의심을 했지만, 연천은 때때로 격언이 있다.”⁴⁶⁾고 하여 그 수록 사유를 밝히고 있다. 그는 비록 책의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좋은 말들이 수록된 책을 버리지 않고 선정하는 포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춘추공양전주소(春秋公羊傳註疏)」⁴⁷⁾, 「삼략(三略)」⁴⁸⁾ 등이 있다.

이밖에 책의 내용은 별로 볼 것도 없지만 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교양적인 내용을 담은 서적을 선정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고려사(高麗史)」이다. 연천은 「고려사(高麗史)」의 해제에서 “그 글은 대체적으로 불만한 것이 못되지만 고려와 본조(즉 조선)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므로, 본조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름지기 고려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⁴⁹⁾고 그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천은 책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당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교양적인 내용을 담은 서적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연천은 이상에서 살펴본 서적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책의 내용 가운데 부분적으로라도 취할 대목이 있다면, 이를 버리지 않고, 과감하게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이는 연천의 실용적인 면과 여러 분야의 학문을 수용하는 데 관대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3.1.4 필수지침서의 성격을 띤 경우

연천은 당시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긴 서적을 선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책들은 다음과 같다.

-
- 46) 위의 책, 經部, 詩門
其言多錯出諸子之書者 而荀子尤多疑爲後人所掇拾 然亦時有格言焉
- 47) 위의 책, 經部, 春秋門
公羊之說 尤病於鑿 然猶有先師之格言焉
- 48) 위의 책, 子部, 兵家門
其書雖假托古人 往往有格言
- 49) 위의 책, 史部, 史門, 紀傳目
其文 則大抵不足觀也 然麗之去本朝最近 生乎本朝者 固不可不知麗史也

「고사신서(攷事新書)」의 해제에서 “그 책은 천문, 지리, 나라의 법제, 조정의 전장(典章), 문장, 예술로부터 농사, 의약, 목축에 이르기까지 거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두 날마다 쓰는 데 간절한 것”⁵⁰⁾이라고 하고, 「상례비요(喪禮備要)」의 해제에서도 “이백여년 동안 위로는 고귀한 사람으로부터 아래로는 궁색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한 권씩 두고 받들기를 금과옥조 같이 한다.”⁵¹⁾고 하고, 「의례문해(疑禮問解)」의 해제에서도 “이 책에 기록한 것은 모두 인가(人家)에서 날로 쓰고 항상 행하는 예(禮)”⁵²⁾라고 하여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사안이 담긴 서적을 선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산복역(增刪卜易)」⁵³⁾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서적들에 주어지는 강조점은 ‘일용(日用)’이다. 그는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평소애 성명이기(性命理氣)와 같이 심오한 이론에 빠지는 것을 비판하였는데, 이와 같은 그의 사상은 수록 서적을 선정하는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에서 꼭 필요한 예법이나 아주 소홀하기 쉬운 실질적인 지식이 담긴 서적을 목록에 수록함으로써 정통 유학을 신봉하는 선비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서 학문과 실생활 간의 균형 감각을 갖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3.2 사상적 가치에 의한 기준

여기에서 말하는 사상적 가치란 유가적 사상 또는 도학과 연계된 서적을 의미한다. 당시 양반지배계층의 독서목적이 입신양명과 도학 실현에 있으므로,

50) 위의 책, 子部, 說家門, 雜纂目
其書自天文地理國典朝章文章藝術以及乎農圃醫藥畜牧之事 無所不舉 大抵 皆切於日用者

51) 위의 책, 經部, 禮門
二百年之間 上自摺紳 下至委巷 家置一本 奉之如金科玉條焉

52) 위의 책, 經部, 禮門
是書所載 皆人家日用常行之禮

53) 위의 책, 子部, 數術家門
今姑存之以備占書之一家 蓋趨吉避凶 使百姓日用而不惑者 政在於淺近易曉耳

이 사상적 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유가 질서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수록되었을 것이다. 이 사상적 가치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1) 공자, 주자 등 유가의 성인이나 대학자를 추종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 2) 하, 은, 주 삼대의 풍속과 제도를 다시 밝히거나, 옛 사람의 덕행을 중주로 삼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우, 3) 유가의 정치사상을 담은 경우, 4) 국가의 대 변란에 관한 서적과 선비 또는 신하의 의리와 충절과 지조 등의 내용을 담은 경우, 5) 유가사상 체계 하에서 경계해야 할 내용을 담은 경우 등이 있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공자, 주자 등 유가의 성인(聖人)이나 대학자를 추앙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

연천은 유가의 시조인 공자(孔子)와 그의 학문을 집대성한 주자(朱子)와 정자(程子)에 관한 서적을 선정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 후세의 학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여하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은 조선 시대의 지배이념이 유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연천이 정자와 주자의 견해를 무조건 수용한 것은 아니다. 비록 연천이 주자를 흠모했지만, 주자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준 하에 연천이 선정한 책들은 다음과 같다.

「정씨역전(程氏易傳)」의 해제에서는 “그 의리를 설명한 것이 공자의 정전(正傳)이다.”⁵⁴⁾라고 하여 그 선정 이유를 밝혔으며, 「서집전(書集傳)」에서는 “그 큰 뜻이 진실로 한결같이 주자를 존대하였다.”⁵⁵⁾고 하고, 주자의 「논어집주(論語集註)」에서도 “공자의 도(道)가 주자를 얻어서 크게 드러났는데, 대개 이 책을 읽으면 더욱 믿음이 간다.”⁵⁶⁾고 하여, 공자를 위시한 정자와 주자의 저술을

54) 위의 책, 經部, 易門
然其說義理 則固孔氏之正傳也

55) 위의 책, 經部, 書門
然其大旨 則固一尊朱子也

수룩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밖에 「공자편년(孔子編年)」⁵⁷⁾, 「궤리광지(闕里廣誌)」⁵⁸⁾,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⁵⁹⁾ 등 역시 이 같은 기준 하에 선정한 것이다.

3.2.2 하, 은, 주 삼대의 풍속과 제도를 다시 밝히거나, 옛 사람의 덕행을 종주로 삼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우.

연천은 유교의 시조인 공자와, 그 학문을 집대성한 정자, 주자와 같은 대학자를 추존한 것은 물론이고, 유교에서 이상 세계로 여기는 하은주(夏殷周) 삼대의 이상적인 풍속과 제도를 밝힌 서적을 선정하고 있다. 그가 문장에서 고문론을 숭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삼대의 제도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비록 자신과 당파를 달리하는 남인 실학자 계통의 저술이라도 삼대의 제도를 밝힌 책은 선정하여 수록하는 아량을 보이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책들은 다음과 같다.

그는 「상례보편(喪禮補編)」의 해제에서 “숙종조에 비로소 3년 상을 부활하고, 영조 때 다시 이 책(喪禮補編)을 편수하니, 삼대의 예가 찬연히 다시 밝혀졌다.”⁶⁰⁾고 하고, 대표적인 남인 실학자인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의 해제에서는 “유형원이 삼대의 제도 중에 작금에 행할만한 것을 미루어 밝혀서 이 책을 지었으니 … 그 논설은 심히 일의 정세에 간절하며, 그 돌아감을 고찰함에 선왕의 도에 합하지 않는 것은 대개 적다.”⁶¹⁾고 하여 당시 기호학

56) 위의 책, 經部, 四書門
孔氏之道 得朱子而大著 蓋讀於是書而益信

57) 위의 책, 史部 禘史門 紀人目
所紀 皆聖師言行

58) 위의 책, 史部 禘史門 紀人目
所紀 以孔氏爲主 而兼及從祀諸賢

59) 위의 책, 子部 儒家門
先生之學 一宗朱子 … 以爲繼朱子之統

60) 앞책, 史部 志門 禮儀目
自肅廟 始復三年之喪 而英祖復修此編 三代之禮 燦然復明

파(畿湖學派)이자 노론에 속하는 권력층 입장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은 실학자 유형원의 서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밖에 「사마법(司馬法)」의 해제에서는 “주나라의 융성한 시절의 법을 오히려 가끔 고찰할 수 있으니 병서 가운데 가장 정전에 가까운 것”⁶²⁾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례로 「대명집례(大明集禮)」⁶³⁾, 「국어(國語)」⁶⁴⁾, 「여씨춘추(呂氏春秋)」⁶⁵⁾, 「종덕신편(種德新編)」⁶⁶⁾ 등이 있다.

3.2.3 유가(儒家)의 정치사상을 담은 경우

연천은 하운주 삼대의 이상적인 정치를 본받아 훌륭한 정치를 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유가의 정치사상을 담은 서적을 선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는 「통전(通典)」의 해제에서는 “대개 진장(典章), 문헌, 치국의 쓰임에 관련된 것이 빠진 것이 없다.”⁶⁷⁾고 하여, 위정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음을 알려 주고, 「대학연의(大學衍義)」의 해제에서는 “모두 경전과 역사서를 원용하여 실증하고, 사례를 해설하고 밝혀서 법계(法戒)가 명확해지니, 임금께서 의당 조석으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하는 책”⁶⁸⁾이라고 하고, 「국조보감(國朝寶鑑)」의 해제

-
- 61) 위의 책, 子部, 儒家門
鑿遠 … 推明三代之制 可行於當今者 以作是書… 其說深切事情 而考其歸 不合於先王之道 蓋寡
- 62) 위의 책, 子部, 兵家門
然成周盛時之典 猶往往可考 兵書之最近於正者也
- 63) 위의 책, 史部, 志門, 禮儀目
今登是書者 從周之義也
- 64) 위의 책, 史部, 史門, 別史目
先王大典 亦往往存焉
- 65) 위의 책, 「呂氏春秋」
然當是時 秦猶未焚詩書 先王之遺典 亦或在焉
- 66) 앞책, 子部, 說家門, 記述目
所記 皆古人 修德獲祐之事
- 67) 위의 책, 史部, 志門, 總志目
凡有繫於典章文獻治國之用者 未有遺脫
- 68) 위의 책, 子部, 儒家門

에서는 “그 책은 오로지 큰 덕과 큰 공훈과 어진 묘책과 선한 정치를 기록하였다.”⁶⁹⁾고 하여 치자(治者)가 필독해야 할 책을 선정하였다. 이밖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담은 구황서들을 수록했는데, 바로 「구황촬요(救荒撮要)」이다. 연천은 그 해제에서 “이 책에서 기술한 것은 대체로 모두 식량감이나 기근(饑饉)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⁷⁰⁾라고 하여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한 여러 서적들을 선정해 놓고 있다.

3.2.4 의리와 충절 사상을 담은 경우

연천은 「홍씨독서록」에서 임진왜란(壬辰倭亂), 계유정란(癸酉靖亂) 등 국가의 변란에 관한 내용과 이 같은 변란을 당해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 몸 바친 충신, 열사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선정하고 있다.

먼저 국가의 변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난중잡록(亂中雜錄)」의 해제에서 “큰 뜻은 임진왜란을 위해서 저술한 것”⁷¹⁾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에서도 “이 책은 임란왜란의 시말(始末)을 상세하게 기록했다.”⁷²⁾고 그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의 변란을 당해서 구국을 위해 공을 크게 세운 충신과 열사의 일을 기록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릉지(莊陵誌)」의 해제에서는 “계유정란(癸酉靖亂) 때의 충신과 열사의 일을 기록한 것이 많다.”⁷³⁾고 하고, 「항의신편(抗義新編)」

皆引經史 以實之指陳既明 法戒以昭 爲人君者 宜朝夕座右焉

69) 위의 책, 史部, 史門, 編年目

國朝寶鑑: … 其書專紀盛德鴻烈, 嘉猷善政

70) 위의 책, 子部, 農家門

所言 大抵 皆服食之需 可以止飢者也

71) 위의 책, 史部, 野史門

然其大旨 則爲壬辰倭寇而作

72) 위의 책, 史部, 野史門

其書記倭寇始末爲詳

73) 위의 책, 史部, 禱史門, 紀事目

靖亂時 忠臣烈士爲多

에서는 “그 책의 내용이 중봉 조헌(重峰 趙憲)의 순절(殉節)한 사건에 대한 것이며 그의 저자 안방준(安邦俊) 역시 기개와 절개가 있고, 강개(慷慨)하여 의를 사모하는 사람”⁷⁴⁾이라고 그 수록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로 「손지재집(遜志齋集)」⁷⁵⁾ 등이 있다.

연천이 이 같은 서적을 선정한 이유는 당시에 변란(變亂)의 내용을 보고 후세에 교훈을 삼아서 향후 이 같은 변란에 대비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임란 후에 송시열(宋時烈) 등이 주장한 화이론(華夷論)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대명(大明)의리론(大明義理論)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⁷⁶⁾ 한편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인 계유정란(癸酉靖亂)에 대해서도 당시의 단종에 대한 의리와 충절을 지킨 신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의리와 충절을 강조한 것은 조선시대 사림(士林)의 학통관에서 중시한 의리(義理) 중시의 사상에 그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3.2.5 유가 사상에서 경계해야 할 내용을 담은 경우

연천은 유교적인 사상체계에서 경계할 만한 내용 또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내용을 담은 서적을 선정하였을 경우에, 후학들이 그 책들을 읽은 뒤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폐단에 대비하는 세세한 방책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는 독서한 후에 발생 가능한 악영향을 미리 예견하여, 문제가 될 만한 책의 해제에서는 그 위해성을 미리 밝혀서 나중에 발생할 병폐를 예방해 주고 있는 것이다.

74) 위의 책, 史部 裨史門 紀事目

是書紀重峰趙公憲殉節之事 … 安公亦有氣節慷慨義慕人

75) 위의 책, 集部 別集門

公大節爲皇朝三百年第一人 卽其文章 亦三百年第一流也

76) 金駿錫, “朝鮮後期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그 展開,”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0), 225-243.

유봉학, “18, 19세기 老論學界와 山林,” 『한신논문집』 제3집(1988), 23-46.

유봉학, “18, 19세기 大明義理論과 對淸意識의 推移,” 『한신논문집』 제5집(1988. 9), 249-273.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책들은 다음과 같다.

연천은 노가의 필독서인 「포박자(抱朴子)」의 해제에서 “「포박자(抱朴子)」를 노가의 맨 끝에 배열한 것은 그 폐단의 극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⁷⁷⁾라고 하여 그 책의 위해성을 설명하고, 「한자(韓子)」의 해제에서는 “지금 상양의 책과 더불어 이 목록에 함께 나열한 것은 그 화패(禍敗)의 연고를 깊이 드러내어 후대에 경계하고자 함”⁷⁸⁾이라고 하여 한비자(韓非子)의 책에 대해 그 해악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그 해악을 설명한 사례로 「상자(商子)」⁷⁹⁾가 있다.

이밖에 「능가경(楞伽經)」, 「원각경(圓覺經)」, 「능엄경(楞嚴經)」, 「법화경(法華經)」, 「화엄경(華嚴經)」, 「금강경(金剛經)」, 「유마힐경(維摩詰經)」, 「귀교경(遺教經)」 등 여러 불가 서적에 대해서는 “불가 서적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 대략 이 같다고 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만 구해 보아도 대략 그 뜻이 어떻게 귀결 되는지 알 수 있으므로 다 보지 않아도 된다.”⁸⁰⁾고 하여, 이단에 해당하는 불가의 서적 역시 한 두 권 정도만 읽으면 대강의 뜻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 이단(異端)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대체로 자신의 주의, 주장과 배치되는 저술에 대해서는 혹평과 함께 도외시하는 상례에 비추어, 연천은 최소한 그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단 읽어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노가, 법가, 불가 등 유가에서 이단시하는 사상을 잘 파악함으로써 도리어 유가적인 도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77) 洪奭周, 洪氏讀書錄, 子部, 老家門

是以列抱朴子于老家之下 以著其流弊之所極

78) 위의 책, 子部, 法家門

今與商軼之書 并列于目者 所以深著其禍敗之故 以為後世戒也 夫學韓商之書而焚之 後世復有韓商者出 則吾無以折其說矣

79) 위의 책, 子部, 法家門

夫軼 以是術殃其身 而殘天下之民 今存其書 何為哉

80) 위의 책, 子部, 釋家門

釋氏之書著於世者 大略如此 得其一以觀之 亦足以識其旨歸 固不必盡觀也

3.3 역사적 가치에 의한 기준

역사적 가치에 의한 서적선정기준이란, 서적이 지니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희귀하거나 유일한 서적 또는 대체성을 띤 서적 등을 선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역사적 가치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1) 서적이 유일하거나 희귀하거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정한 경우, 2) 학문이나 학파 또는 어떤 일의 시작 내지 기원을 알려주기 때문에 선정한 경우, 3) 특정 서적의 보충 내지 대체성을 띤 경우 등이 있다. 이들 기준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1 유일본, 희귀본, 최고본(最古本)인 경우

이 기준은 고서의 역사성과 희귀성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고서로서의 희귀성과 내용적인 가치가 모두 포함된 것도 있고, 단지 희귀성이나 역사성에만 중점을 둔 경우도 있다.

먼저 전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서적으로 「상서주소(尙書註疏)」의 해제에서 “정현(鄭玄)의 금문주해서가 이미 일실되어 전하지 않으므로 당송 이전에 「서경」의 주해서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이 책뿐이다.”⁸¹⁾라고 하여 그 내용의 희귀성을 강조하고 있다. 후자의 예로서 「원문류(元文類)」의 해제에서 “원나라의 문선(文選)으로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은 오직 이 책만이 있는데 무시하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⁸²⁾고 해제를 하여 내용은 볼 것도 없지만 이 책이 유일하기 때문에 선정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주역집해(周易集解)」⁸³⁾, 「춘추집주(春秋集註)」⁸⁴⁾, 「삼국사

81) 위의 책, 經部, 書門

然鄭玄今文注 已失不傳 唐宋以前 書解之存於今者 唯此篇耳

82) 위의 책, 集部, 總集門

然元文之選 行于世者 唯此書獨著 … 雖廢以無觀可也

83) 위의 책, 經部, 易門

自王弼之易行於天下 而漢儒之學絕 後世之儒 得見漢儒之影響者 唯此書在

84) 위의 책, 經部, 春秋門

朱子門人治春秋者 唯治一人

《三國史》⁸⁵⁾, 「여지승람(輿地勝覽)」⁸⁶⁾ 등이 있다.

이밖에 현재 각 주제 분야의 서적 가운데 남아 있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선정된 경우가 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광운(廣韻)』, 『후한기(後漢記)』, 『당률소의(唐律疏義)』 등이 있는데 이들 서적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천은 『광운(廣韻)』의 해제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는 오직 이 책이 가장 오래된 것”⁸⁷⁾이라고 하고 『후한기(後漢記)』의 해제에서는 “지금 양 한기[漢紀, 後漢紀]를 남겨둔 것은 고서라서 귀하게 여긴 것일 뿐이다.”⁸⁸⁾라고 하고, 『당률소의(唐律疏義)』의 해제에서도 “전대의 율령 서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오직 이 책이 가장 오래된 것”⁸⁹⁾이라고 해제하였다. 이밖에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로 『상서대전(尙書大傳)』⁹⁰⁾, 『사문유취(藝文類聚)』⁹¹⁾ 등이 있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다른 선정기준과는 달리 연천이 책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서지학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천이 책 내용의 좋고 나쁨, 혹은 자신의 독서 취향 등에 따라 선정하기 보다는, 책이 갖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후학들 역시 그런 서적을 선택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5) 위의 책, 史部 史門, 紀傳目, 檀君以後 本朝以前 以史名者 唯茲書而已

86) 위의 책, 史部 志門 職方目 東國地誌之行于世者 唯此書

87) 위의 책 經部 小學門 然今皆不存 其存者 唯此書最古

88) 위의 책, 史部 史門 編年目 今存兩漢記者 貴古書耳

89) 위의 책, 史部 志門 典法目 前代律令之書 傳於今者 唯此書爲最古

90) 위의 책, 經部, 書門 三代以後 說書者 莫古於是篇

91) 위의 책, 子部 說家門 類書目 類書 自梁劉峻始 其書今不傳 傳於今者 唯是書最古

3.3.2 학문이나 학파 또는 어떤 일의 시작(始作) 내지 기원(起源)을 알려주는 경우

이 기준은 학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독서를 하는데, 그 특정 주제 분야 또는 그 학문의 시원(始原)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서적은 다음과 같다.

「열녀전(列女傳)」의 해제에서는 “부인이 전(傳)을 두기 시작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된다.”⁹²⁾고 하고,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에서는 “불가의 책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이 책으로부터 시작한다.”⁹³⁾고 하고, 「계원필경(桂苑筆耕)」의 해제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집은 이 책으로부터 시작한다.”⁹⁴⁾고 하고, 「한기(漢紀)」의 해제에서는 “춘추 이후에 편년체 역사서는 순열(荀悅)로부터 시작한다.”⁹⁵⁾고 해제하고 있다. 이밖에 「농사직설(農事直說)」⁹⁶⁾, 「장경(葬經)」⁹⁷⁾, 「설문해자(說文解字)」⁹⁸⁾, 「시품(詩品)」⁹⁹⁾ 등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

어떤 학문에서든 가장 기본이 되는 전범서(典範書)가 있겠지만, 그것만 공부할 경우 그 학문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연천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문의 시원을 알려줄 만한 책을 그의 목록에 포함시켜 후학들이 학문의 시원에서 발달과정에 이르기까지 보다

92) 위의 책, 史部 神史門 紀人目
婦人有傳 蓋始於此

93) 위의 책, 子部 釋家門
釋氏之書 入中國 自此始

94) 위의 책, 集部 別集門
東國之有文集 自是始

95) 위의 책, 史部 史門 編年目
春秋以後 編年之書 自悅始

96) 위의 책, 子部 農家門
東國之有農書 始此

97) 위의 책, 「葬經」
天下之言風水者 自是書始

98) 위의 책, 經部 小學門
言字學者 咸以說文爲祖

99) 위의 책, 子部 說家門 評藝目
論詩之書 自此始

폭 넓고 깊이 있게 학문을 연마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3.3.3 특정 서적의 보충 내지 대체성을 띤 경우

이 기준은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 독서를 할 경우 함께 읽어야 할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거나 대체적인 성격을 지닌 서적들을 선정한 것이다. 먼저 보충적인 성격을 띤 서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당서(南唐書)」에서는 “구양공(歐陽公)은 오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지만 십국에 대해서는 간략하다. 육유(陸游)가 이 책을 지어서 빠진 내용을 많이 거두고 문장이 우아하고 정결하다.”¹⁰⁰⁾고 하면서 육유(陸游)가 구양수(歐陽修)의 「오대사(五代史)」에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지었다고 하고, 「동사회강(東史會綱)」의 해제에서는 “이 책이 고려시대의 역사를 기술한 것은 「여사제강(麗史提綱)」의 상세함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신라 이전의 역사 기술에 있어서는 유계(兪槩)의 「여사제강」에 없는 신라 이전의 역사를 보충할 수 있다”¹⁰¹⁾고 하여 그 수록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특정 서적 또는 그 내용에 대해 대체성을 띤 서적을 선정하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중주집(中州集)」에서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금사(金史)」를 보지 않아도 된다.”¹⁰²⁾고 하여 「중주집」이 금나라 역사의 대체물적 성격을 띤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사본말체 역사서인 이궁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의 해제에서 “이 목록에서 「송원기사본말(宋元紀事本末)」과 「명사기사본말(明史紀事本末)」을 모두 수록하지 않고 유독 이 책만을 취한 것은 우리 조선에 아직 정사(正史)가 없기 때문이다.”¹⁰³⁾라고 하여 「연려실기술」을 조

100) 위의 책, 史部 史門 紀傳目
歐公史於五代頗詳而略於十國 游作是書 多蒐逸聞而文章雅潔

101) 위의 책, 史部 史門 編年目
其編麗代史 不及提綱之詳 而新羅以上 可以補兪公之闕

102) 위의 책, 集部 總集門
讀是集者 卽不讀金史可也

선 정사의 대체물로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이와 같은 사례로 「명신 언행록(名臣言行錄)」¹⁰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¹⁰⁵ 이 있다.

학문을 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영역에서든 가장 훌륭한 서적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널리 알려진 책만으로는 그 의욕을 충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에 연천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서적을 과감하게 선정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완벽하고 정밀한 학문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3.4. 기타 기준

이상에서 살펴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먼저 목록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명목상 선정한 경우가 있다. 연천은 「홍씨독서록」에 수록할 서적을 선정하면서 무조건 내용의 우수성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그는 목록으로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여, 굳이 수록하지 않아도 될 서적을 단지 다른 책들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선정한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송사(宋史)」와 「통지(通志)」이다.

연천은 「송사」에 대해 내용상에 문제가 많지만, 중국 정사 가운데 하나를 빠뜨릴 수가 없어서 정사(正史)의 전후 연계 상 그 구색을 맞추느라고 수록했다¹⁰⁶는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통지(通志)」가 있다. 그는 이 책의 해제에서 “이 책은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와 더불어

103) 위의 책, 史部 野史門

宋元起事本末 … 明史紀事本末 皆不錄 獨取是書者 本朝未有正史也

104) 위의 책, 史部 雜史門 紀人目

宋史世無良本 稽古者 咸資是書

105) 위의 책, 史部 志門 禮儀目

我東方文獻闕如 往往賴中國之書 以資考證 此亦其一也

106) 위의 책, 史部 史門 紀傳目

歷代之史遞不如古 至宋而極矣 其冗漫蕪穢 殆不可讀 以其爲一代之正史 故不能廢

삼통(三通)의 하나로 일컬어온 지 오래이다. 그런 까닭으로 두 책[통전, 문헌통고] 사이에 배열했으니 비록 보지 않아도 된다”¹⁰⁷⁾고 하여 「통지」의 경우에도 「송사」와 마찬가지로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수록한 사례로 「패문재서화보(佩文齋書畫譜)」¹⁰⁸⁾, 「원사(元史)」¹⁰⁹⁾ 등이 있다.

이밖에 무과(武科)에 시험을 보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정한 것이 있다. 그는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의 해제에서 “「육도(六韜)」이하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삼략(三略)」]에 「위료자(尉繚子)」를 더하여 이를 무경칠서(武經七書)라고 한다. 모두 유인(劉寅)의 직해(直解)가 있어서 무학(武學)에 나열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익힌다.”¹¹⁰⁾고 하여 과거의 무과(武科)에 응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책들을 선정하였다. 어린이를 훈육시키기 위해서 선정한 것으로 「동몽훈(童蒙訓)」이 있으며¹¹¹⁾, 서양의 학문에 대해서 논평한 것으로 「동문주지(同文籌指)」가 있으며¹¹²⁾, 처세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독서경(讀書鏡)」을 수록하였다.¹¹³⁾

107) 위의 책, 史部 志門 總志目
特以三通并稱 其來已久 故姑列于兩家之間 雖不觀可

108) 위의 책, 子部 藝術家門
若是書者 君子雖勿觀可也

109) 위의 책, 史部 史門 紀傳目
其書 不踰數月而成 故訛舛最多 至有一人而兩傳者 他可知矣

110) 위의 책, 子部 兵家門
自六韜以下[孫子, 吳子, 司馬法, 三略] 加之以尉繚子 謂之武經七書 皆有劉寅直解 列于武學 應學者 習焉

111) 위의 책, 子部 儒家門
是書尤有裨于訓蒙 朱夫子作小學 取其言甚多

112) 위의 책, 子部 數家門
蓋西洋之學固邪 而其推步之密 則中國所不及也

113) 위의 책, 子部 說家門 論說目
惟是篇所稱述 皆依忠厚 其有補於省躬處世之方者 尤多

4.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의 비교

여기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홍씨독서록」의 서적선정기준을 도서관에서의 자료평가기준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도서관의 자료평가기준과 선정 도서목록인 「홍씨독서록」의 서적선정기준이 그 범위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선정목록이든 도서관이든 좋은 책을 선정해서 수록 또는 소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일치하므로 비교연구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장서개발론의 대학자인 카터(Carter), 캐츠(Katz), 가드너(Gardner) 등이 주장한 장서평가기준을 각각 나열하여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한 장서평가 이론의 주요 사항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여러 학자들의 장서평가기준을 종합한 후에 이들 기준을 홍석주의 서적선정기준과 대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송영희¹¹⁴⁾는 「장서관리」에서 카터(Carter), 캐츠(Katz), 가드너(Gardner), 스피러(Spiller) 등 장서개발 분야의 주요 학자들이 그들의 저서에서 도서관 자료를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해 다양하게 기술한 내용 가운데 공통 요소를 추려서 1) 저작사항에 관한 것으로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에 관한 것 2) 내용에 관한 것으로 주제, 주제의 범위, 주제를 다루는 방식, 표현, 문체 등에 관한 것, 3) 물리적인 특성으로 활자, 지질, 제본, 삽화 등에 관한 것, 4) 도서관 장서로의 유용성 평가에 관한 것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윤희윤(1999)도 그의 「장서관리론」에서 일반도서의 선택기준으로 1) 저자의 권위, 2) 주제와 범위, 3) 물리적 특성, 4) 독자에 대한 가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¹¹⁵⁾. 두 사람 모두 서양의 여러 학자들의 기준을 참조하여 그 주요한 골자를 추려서 구분한 것이다. 위의 두 사람의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빠대는 동일하게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에 필자는 상기한 현대 문헌정보학자들이 제시한 장서평가기준 가운데 홍석

114) 송영희 외 3인, 「장서관리」(서울: 구미무역, 1999).

115) 윤희윤, 「장서관리론」(대구: 태일사, 1999).

주의 것과 상호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서 1) 저자사항, 2) 내용사항, 3) 도서관 또는 독자의 유용성 등 3가지로 정리하여 각 항목별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4.1 저자 사항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을 보면 저자의 권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경험이 많고, 다른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명한 학자일수록 그들이 저술한 책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 받는 것이다.

연천은 조선후기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일생을 마쳤다. 당시 국가를 지배하는 사상적인 기반이 유가인 만큼, 연천 역시 공자를 시조로 주자, 정자 등 대유학자들의 저작을 상당히 많이 수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가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서적들을 수록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상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저자의 인물됨을 상당히 중요시 하였다. 그는 저자의 학식과 학문 뿐 아니라 저자가 지닌 인품과 문장력 등까지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여차피 유가적인 질서 속에서 시조인 공자와 주자, 정자 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논의를 추종하거나 확대한 인물들의 저작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지만, 그 선정 과정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연천은 인물을 중시해서 많은 책들을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고려시대의 이규보(李奎報)와 이제현(李齊賢) 둘 중에 이제현을 선정한 것은 그가 인물됨을 중시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국가의 대 변란을 맞이하여 큰 공훈을 세운 조선시대 최고의 장수인 이순신(李舜臣)의 『이충무공전서』를 수록한 점 역시 구국충신을 존경하자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뛰어난 문장가로 중국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수록하고 그 가운데 한유(韓愈)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연천이 뛰어난 문장력을 높이 평가하여 자신과 사상체계를 달리하는 『장자(莊子)』를 수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 비록 인물은 하찮아도 문장이 뛰어

난 사람이면 그들의 저작을 버리지 않고 선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천의 저자에 대한 평가 방식은 가문, 학벌 등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저자의 장점을 냉철하게 파악하여 선정한 것이다. 그는 주요한 인물들이 찬사를 보낸 저작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밖에 책의 내용은 뛰어나지 않지만 불만한 가치가 있거나 책 내용 중에 선인들의 격언이 나오는 서적들을 선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그는 당시에 구하기 힘든 희귀본이나 유일본 등을 선정하여 수록하는 등 현대의 서지학적인 면에서 볼 때 중요한 서적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저자사항에 대한 연천의 선정 기준은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못지않게 나름대로의 방식에 충실하게 서적선정기준을 밝혔음을 알 수 있다.

4.2 내용 사항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에서 내용 사항이란 각 주제, 주제의 범위, 표현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독자에게의 기여도,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정보의 정확성 등 주로 저작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¹¹⁶⁾

연천은 중국의 전통적인 분류체계인 사부분류법에 의거하여 서적을 선정하고 분류하였다. 사부분류법 체계가 원래 유가 질서 하에서 작성된 것이고, 연천이 생존했던 시대가 바로 유가 질서하의 신분제 사회에 있었으므로 연천이 선정한 책들 역시 기본적으로 이들 유가정치 질서 하에서 도학(道學)을 실현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들이다.

연천은 각 주제 분야에서 수록된 내용이 가장 뛰어난 책을 선정하였다. 이밖에 여러 주제에 대해 집대성한 서적이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지침서적인 내용이 담긴 서적, 각 주제 분야에서 학문의 기원이나 시원이 되는 서적,

116) 송영희 외 3인, 「장서관리」 (서울: 구미무역, 1999).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중시한 의리와 충절 사상이 담긴 서적 등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유가사상적 내용이 담긴 책만을 선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유가질서와 반대되는 사상으로 유가 질서를 유지하는데 해악이나 폐해를 미칠 수 있는 법가(法家), 노가(老家), 불가(佛家) 등의 서적도 선정하여 그의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들 서적을 독서한 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악영향에 대해 대비하는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천은 각 주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내용이 담긴 책을 수록하였다 할 수 있다.

4.3 도서관 또는 독자의 유용성

도서관에서의 유용성이란 소장된 책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이용될 것이며, 독자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또한 얼마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가, 도서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 가 등에 중점을 둔 문제이다.¹¹⁷⁾

연천이 「홍씨독서록」에 수록할 서적을 선정할 때, 자신이 예전에 무작정 방향성을 잡지 않고 책을 읽은 것을 후회하고, 동생 길주(吉周)와 우리나라 후학들의 학문 방향을 잡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연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후학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각 주제 분야에서 선정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목록은 선정도서해제목록으로서 조선후기의 선비들이 독서하는데 대단히 효용성이 높은 목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3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자사항과 내용사항이다. 즉, 책의 저자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 책에 담긴 내용이 어떠한가가 결국 좋은 자료를 선택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연천 역시 「홍씨독서록」을 편찬하면서 저자와 내용에 가장 역점을 두고 서적을 선정하였다. 연천의 「홍씨독서록」이 조선시대에 나온 것이고, 그 성격이 선정도

117) 위의 책

서목록인 점에서 볼 때, 그가 이 목록에서 밝힌 서적선정기준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목록의 성격을 감안해도, 현대의 양서(良書)의 평가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연천 홍석주가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인 「홍씨독서록」에 수록된 서적들에 대한 선정기준에 관해 고구(考究)한 것이다. 이 선정기준은, 「홍씨독서록」의 범례 등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동 독서록」의 각 저록에 포함된 해제를 일일이 검토하여 그 서적의 선정사유를 밝혀내고 이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고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천은 「홍씨독서록」에 수록된 472종의 서적 가운데 260종(55%)에 대해 선정 사유로 해석할 만한 내용을 밝혔다. 필자는 연천의 서적선정기준을 1) 서적의 내재적 가치에 의한 기준, 2) 사상적 가치에 의한 기준, 3) 역사적 가치에 의한 기준, 4) 기타 기준 등 4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연천이 「홍씨독서록」을 편찬한 것은 바로 37세 때의 일이다. 당시 그의 벼슬은 왕실도서관인 홍문관의 부제학으로 재직하였다. 그가 어려서부터 가학적(家學的)인 영향을 받아서 섭렵한 전적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22세 때 벼슬에 오른 뒤 왕실도서관인 홍문관, 규장각 등에서의 실무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더하여 그의 전적에 대한 지식은 거의 원숙기에 달했을 것이다. 이 같은 배경 하에 선정도서해제목록을 편찬하여 후학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독서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마련해 주었다.

연천은 각 주제 분야에서 내용이 가장 뛰어난 서적을 선정하였지만, 선독(選讀)에만 치중할 경우, 학문의 깊이와 폭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학문을 집대성한 서적을 목록에 수록하여 독서의 불균형을 보완하였다. 그는 학문의 실용성을 중시하여 수록 서적을 선정하면서 ‘일용(日用)’ 즉, 실용성도 강조하고 있

다. 한편 그는 자신의 사상과 배치되는 노가(老家), 법가(法家), 불가(佛家) 등 유가에서 이단시 하는 저술도 포함시켰는데, 그것은 도리어 유가적인 도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그는 회귀본이나 유일본 등을 수록함으로써 책의 저자나 내용에 대한 관심 외에 소위 서지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책이 갖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후학들 역시 그런 서적 선택의 안목을 갖도록 기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학문의 시원(始原)을 알려줄 만한 책을 목록에 포함하여 후학들이 학문적 깊이를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연천이 「홍씨독서록」을 편찬한 이유는 바로 후학의 학문 방향을 잡아 주기 위한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유가 질서하의 신분제 사회였다. 연천이 선정한 책들은 모두 당시의 지배질서를 굳건히 하면서 유가의 도학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는 서적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처럼 사상적인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연천의 서적선정기준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포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상과 당파를 초월하여 양서(良書)를 선정하려는 그의 노력은 보다 완숙하고 폭 넓은 학문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것이다.



<참고문헌>

- 金駿錫. “朝鮮後期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그 展開”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0.
-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 송영희 외 3인. 「장서관리」 서울: 구미무역, 1999.
- 유봉학. “18, 19세기 老論學界와 山林.” 「한신논문집」 제 3집 (1988), 23-46.
- 유봉학. “18, 19세기 大明義理論과 對淸意識의 推移.” 「한신논문집」 제 9집 (1988), 249-273.
- 윤희윤. 「장서관리론」 대구: 태일사, 1999.
- 洪奭周. 洪氏讀書錄, 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 想白文庫所藏本.
- 洪奭周. 洪氏讀書錄(淵泉先生文集, 卷40), 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 一般古書集書本.
- 洪奭周. 洪氏讀書錄(淵泉先生文集, 卷40), 延世대학교 中央圖書館 所藏本
- 金 佺. 海東文獻總錄, 影印本, 서울:學文閣, 1969.
- 徐有桀. 鏤板考, 洪命燾校訂本, 影印本, 서울, 寶蓮閣, 1968.
- 徐浩修. 奎章總目, 內閣, [1781].
- 洪奭周. 上黨世稿序(淵泉全書, 影印本, 卷3, 서울, 昨晟社 : 1984).
- 洪奭周. 答金平仲論文書(淵泉全書, 卷2, p.679).
- 洪奭周. 豊山世稿跋(淵泉全書, 影人本, 卷7, 서울 : 昨晟社, 1984).
- 洪奭周. “延安鄉校講會敍.” 「淵泉全書」(서울: 昨晟社, 1984) 卷3.

к с і